

김주산지 '마로해역' 진도·해남 끝나지 않는 어업권 갈등

40년 분쟁 해남군 패소...면허지 올 10%·2030년 협상 후 90% 반환키로 진도 어민, 조건 없는 반환 요구...해남 어민 '생존권 보장' 요구 등 나서

전국 최대 김 양식장인 해남-진도 마로해역의 김 양식이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로해역을 둘러싼 양 지역 어민들의 40년 어업권 분쟁이 지난 해 말 진도군의 승소로 일단락됐으나 어장 회수 등 후속 조치를 두고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진도군 승소로 끝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양 지역 어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가 최근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놨으나 이번에는 진도 어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해남 어민의 면허지 10%를 올해 반환하고, 나머지 90%는 2030년 협상 후 결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진도 어민들은 나머지 90%의 조건 없는 반환을 요구했다.

협상이 막히면서 마로해역 어업권 상실 위기에 놓인 어민들은 사실상 올해 양식은 어렵게 됐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진규 마로해역 대책위 총무는 "김 양식 채묘 계약 등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적기가 지났다"며 "올해 김 양식은 사실상 물 건너가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유 총무는 "진도어민과 해남어민이 1994년 마로해역 김양식 어장 3072ha 중 상당부는 진도, 하단부는 해남에서 양식하자고 합의했다"며 이의 이

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해남 어민 400여명은 지난 18일 진도에서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한 데 이어 이날도 김 양식 준비 대신 무기산 불법 사용 등 민원 제보 활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진도군 마로해역대책위는 마로해역의 대법원판결 등을 이행하지 않는 처사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법부 판단에 행정청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협의확약서 이행 등을 촉구했다.

진도수역 80%, 해남수역이 20%를 차지하는 마로해역에서 해남어민들은 1982년부터 김 양식을 해왔다.

진도어민들이 마로해역을 자신들의 해상이라고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소송으로 비화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남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진도어민의 손을 들어줬다.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마로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데 이어 어업권 소송도 승소하자 어장 회수에 나섰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진도어민들이 지난 19일 진도군청 앞에서 어업권을 둘러싼 갈등 방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진도군 제공>

추석 연휴, 송가인과 '진도 토요일속여행'

30일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특별공연 '화답' 등 다채

진도군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가향'을 주제로 추석맞이 진도 토요일속여행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추석을 맞아 종합장악 연주 음악인 '천지개문(천공)', '진도북놀이', '추석명절 특별공연인 화답'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화답'은 지역출신 가수 송가인이 출연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주민들에 화답하는 의미로 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을 연출해 재미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토요일속여행은 지난 1997년 4월 제1회 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86회 공연에 39만 1000여 명의 관객이 관람했다.

지난 201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토요일속여행은 대한



송가인
민국의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추석을 맞아 진도를 찾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이 보배진도만의 맛과 흥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군, 식량·소득 작물 작황 정보 공유



영광군 '2023년도 새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참가자들이 지난 18일 새로운 농산물 생산기술 현장을 찾아 평가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새기술 보급사업 종합 평가회

영광군이 '2023년 새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열고 새로운 농산물 생산기술의 발전 방향을 찾았다.

지난 18일 열린 '2023년도 새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는 영광지역 농업인 80여 명이 참석했다.

종합평가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된 기술보급사업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농업기술의 빠른 현장 확산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올해 식량 작물과 소득작물의 작황과 병해충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시범 사업지를 찾아 생산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식량 작물 분야에서는 가루 쌀(바로미2) 시험 재배 포장, 논매단작물 맥류-콩이모작 재배 시범단지, 밭작물 종자부착 생분해 필름 시범단지 등 4곳을 찾았다.

소득 작물 분야에서는 딸기 꺾꽂이모 대량증식 기술 시범단지, 고온기 극복 대파 연중생산 기반 구축 시범단지 등 5곳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현장 평가를 하고 농업 기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고윤자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평가회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우수 사례는 널리 보급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영광 농업인들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해남군 '농촌 일자리사업' 일손 부족 해소 효과

농가-구직자 연결...올 첫 도입 5000여건 실적 거둬

해남군이 '지역상생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이 5000여건의 일자리 연계 실적을 올리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특목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상생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은 관내 농가와 관외 지역 구직자를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각각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임금과 근로 시간, 작

업내용 등을 사전 협의해 매칭한다.

군에서는 일자리 참여자의 중식과 간식비용 9000원을 농가에 지원한다.

구직자에게는 교통비 1만원과 지역 내 숙박 시 숙박비용 2만5000원을 쥐 일자리 참여율을 높인다.

지난 4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 벌써 5천여명의 일자리 알선이 이뤄졌으며 하반기 배추 정식 및 수

확이 본격화되면서 연내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농촌일자리 알선 방식과 군의 체계적 지원에 농가와 구직자 모두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군은 전했다.

농가의 실제 인력 수요에 비해 아직 구직자 참여가 부족한 만큼, 군은 구직자 적극 발굴과 함께 사업 지원을 강화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1억5000년 전 '공룡의 세계'로 탐험 떠나요

해남공룡박물관 공룡캠프 다음달 14·28일...참가자 모집

해남공룡박물관에서 다음 달 14일, 28일 가족과 함께하는 공룡캠프가 열린다.

참가 대상은 만 5세부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회차당 10가족을 모집한다.

캠프에서는 공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물관 전시 교육과 야외 화석지 탐사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족들과 함께 단체 미션을 수행하는 다양한 야외 게임 활동이 준비됐다.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공룡발톱 체험 등 체험 활동과 샌드아트, 마술공연 등도 열린다.

해남공룡박물관은 2007년 개관해 매년 20여만 명의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박물관이다.

400여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희귀전시물들을 갖춘 전시 공간을 비롯해 공룡 관련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실, 어린이 공룡 교실 등으로 구성됐다.

천연기념물 제394호로 지정된 우항리 공룡화



지난해 가을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열린 공룡캠프 모습. <해남군 제공>

석지의 보호각을 비롯해 금호호의 갈대밭과 어우러진 330만㎡의 넓은 야외 공원은 실물 크기 공룡과 놀이시설이 조성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어린이 체험학습 장소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가족은 다음 달 3일까지 해남공

룡박물관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이메일(wjdsun5@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겁게 학습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기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 외국인 주민 체력 측정 목포시 주요 간선도로·인도 제초 작업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최근 외국인 주민들 대상으로 체력 측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력 측정은 세한스포츠클럽 영암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했다. 타국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걸 어려워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체성분과 혈압,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 등을 측정했다. 센터 측은 참가자들의 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 처방을 제공했다.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앞으로 영암 인근 사업체와 협약을 맺어 '찾아가는 체력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목포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요 간선도로와 인도에서 제초작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요 간선도로와 인도에서 제초작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추석 명절과 104회 전국체전(10월), 43회 전국장애인체전(11월)을 앞두고 도로변과 인도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목포시는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채용해 도로변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그동안 약 400km 구간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

로 제초 작업을 진행했다.

고하도 일원, 대양산단, 갯바위 일주도로 등 통행량이 많은 도로도 정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초 작업으로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분들의 기억에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며 "전국체전 대비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